증권가, '관세율 인하' 현대차 주가 전망 대폭 상향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부담 크게 줄어
BNK證, 36만원 제시… 내년 실적 기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자 증권사들이 현대자동차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3일 BNK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36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리포트를 통해 현대차 주가를 3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BNK투자증권은 "현대차는 관세 인하에 더해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현대차가 부담할 관세가 대폭 줄었다. 당초 25% 관세율이 적용되면 내년 현대차는 5조70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예상됐다. 그러나 15%로 관세율이 조정되면서 이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현대차가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증권가는 전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가솔린 및 디젤 모델에 비해 평균판매가격(ASP)가 높은 고수익 제품군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교보증권도 "현대차가 4분기부터 미국에서 신형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인도를 시작한다"면서 "내년초에는 현대차그룹 전체 차종 중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이 일본의 혼다를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1일 발표된 현대차 실적도 목표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현대차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46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29.2% 감소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SK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올해 4분기 팰리세이드 뿐만 아니라 투산, 아반떼의 2026년형 모델을 출시를 통해 이른바 '골든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며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닛산, 스텔란티스 등이 먼저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했던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비트코인 ETF, 법제화 기대감

[비트코인ETF 시대④.끝]국회, 법안 발의 잇따라… 연내 입법 가능성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025.6.27), 정성국 의원안(2025.3.17), 송석준 의원안(2025.6.18)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현물 ETF 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완료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 후 11월 및 12월에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에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합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도 제도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도입을 위한 기관투자자 현물거래 허용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법인거래 허용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실은 "금융위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보고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률 개정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화 이전에는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제한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적인 이슈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규제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진단한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관심이 높고 정부의 추진 의지도 있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법안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법안 승인과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법제화 이후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도 자산운용사도 사업적인 준비는 돼 있고 기술적인 이해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법만 적시에 적당한 범위로 이뤄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화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국과 홍콩에 이어 주요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형 비트코인 ETF는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의 '최종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노타, 코스닥 시장 상장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AI 최적화 및 경량화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주)노타의 한국거래소 제공

'SOL 조선TOP3플러스 ETF' 순자산 급증

에프앤가이드 지수 활용 테마형 ETF

에프앤가이드는 자사 지수를 기초로 운용되는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10월 31일 기준 순자산총액 2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상장 이후 약 2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SOL 조선TOP3플러스'는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추종하는 156개 ETF 중 최초로 순자산 2조원을 넘어선 상품으로, 10월 31일 기준 전체 국내 ETF 중에서도 27번째로 2조원 클럽에 진입했다. 국내주식형 ETF 중에서는 7위, 시장대표지수를 제외한 테마형 ETF 중에서는 1위 규모를 기록했다.

FnGuide 조선TOP3플러스 지수는 국내 조선 상위 3사를 중심으로 조선 기자재 및 해운 등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해, 조선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지수다. 최근 글로벌 해상 운임 강세와 LNG선 중심의 수주 확대, 조선업 공급 제한 등 산업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미국의 마스가(MASGA) 정책 기조와 함께 관련 테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번 성과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투자자 관심 확산에 따라 동일 지수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형 ETF도 2025년 7월 상장하며 상품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기초로 한 전체 ETF의 순자산총액은 10월 말 기준 31.3조원으로, 한 달 사이 약 5조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순자산 1조원을 초과한 주식형 ETF만 9개에 달해, 에프앤가이드 지수의 시장 내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프앤가이드 인덱스사업본부 관계자는 "산업 트렌드와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지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지수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반도체 산업 글로벌 1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한투운용 제공

ACE 반도체TOP4 Plus ETF 순자산액 총액 6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22년 11월 상장된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31일 종가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6111억원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약 900억원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며 순자산 규모가 확대됐다.

또한 최근 34일 연속 개인순매수가 이어졌으며, 해당 기간 개인순매수 누적액은 약 505억원에 달했다. 해당 ETF의 성장세는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운용 전략과 우수한 수익률 덕분으로 풀이된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반도체 산업 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등 4대 핵심 섹터의 글로벌 1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상위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수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영역별 대표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변동성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편입 종목 비중은 △SK하이닉스(26.54%) △ASML(18.72%) △TSMC(18.39%) △엔비디아(17.76%) 순이다.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03.49%, 1년 수익률은 83.28%로, 국내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ETF의 평균(6개월 73.22%, 1년 51.61%)을 웃돌았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369.54%에 달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해 효율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를 통해 해당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이 주목되는 반도체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